

제19차 세계토양과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참가기

최 중 대

(jdchoi@kangwon.ac.kr)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제19차 세계토양과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WCSS, World Congress of Soil Science)가 호주 퀸즈랜드 브리즈번(Brisbane)시의 브리즈번 Convention and Exhibition 센터에서 2010년 8월 1일(일요일)부터 6일(금요일)까지 6일간 개최되었다. 필자는 1편의 논문발표,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토양유실과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련된 국제적인 연구방향과 동향의 파악 그리고 호주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같은 단순한 목적으로 WCSS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WCSS는 필자에게 예상외로 많은 연구 자료와

감동을 안겨주었다. WCSS는 소규모의 학회가 아니라 전 세계의 거의 모든 토양관련 학술단체의 연합체인 IUSS(International Union of Soil Science)가 4년마다 개최하는 토양과학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가 큰 종합학술회의였다. 이번 회의에는 50여개국에서 1,500여명의 전문가, 학생 및 행정가들이 참석하여 1,8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KCID가 유치한 ICID Congress보다 규모가 크거나 비슷한 매우 큰 학술회의였다.

IUSS 총회에서는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인 양재의 교수를 IUSS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차기 회의인 제20차 WCSS는 2014년에 우리나라 제주도의 ICC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약 40여명 이상의 한국인 전문가가 참석하여 다양한 논문 발표 외에 차기회의 준비, 조직, 진행 등에 관해 열심히 배우고 견학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필자는 토양과학자가 아닌 농업수리와 수문 및 비점오염원 관리와 제어를 연구하는 공학자이지만 토양관련 교수와 농촌진흥청 연구원들이 차기 WCSS 회의의 준비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KCID도 2014년에 개최예정인 ICID IEC와



포스터 발표와 필자

Congress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과 함께 국제회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ICID나 WCSS와 같은 대규모 국제학술행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브랜드와 전문 학술분야 기술력의 홍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번 WCSS 회의 등록비는 약 90만원 정도로 비쌌는데 학회에서 제공한 혜택은 5일 동안 샌드위치 도시락(점심), 1회의 환영리셉션, 배낭 1개, 학술회의 프로그램과 논문수록용 CD 1장, 그리고 하루 세 번의 커피와 간식제공이 전부였다. 점심은 우아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의자와 식탁)를 제공하지 않아 포스터 발표장, 회의장 건물의 복도 혹은 야외의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먹어야 했다. 한국식 생각으로는 왜 90만원의 많은 등록비를 내며 비싼 비행기 값을 물고 또한 더 비싼 호텔비를 내며 머나먼 곳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세는 이미 국제학술회의에서 고착되어 있다. 호주의 어느 기관에서는 국제학술회의를 유치하고 몇 년 동안 연구할 연구비를 확보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도 더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우리의 기술력 홍보는 물론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학회의 규모가 큰 만큼 개회식은 국제토양학회 회장(Prof. Roger Swift, President of International Union of Soil Science, IUSS)의 사회로 호주 연방정부의 장관과 퀸즈랜드 주정부의 수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어진 Plenary 세션에서는 2명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IIRI의 Robert Zeigler 박사는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식량, 주로 쌀 생산문제에 관한 강연을 감명 깊게 발표하였고 나는 이 발표 자료를 연구와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어렵게 구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호주의 Pedro Sanchez 박사가 기상이변과 호주의 식량증산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기구의 기상이변(climate change)라는

용어보다 지구변화(global change)라는 용어가 적당하다고 주장했고 나도 이 용어정의에 동의하였다. 그는 Global Change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식량증산을 위해 어떤 완화(mitigation)와 대응(adoption)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를 호주의 입장에서 설명하였다. 토양과학자들도 수문학자들 못지않게 기상이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술발표회의 운영은 필자가 참석하는 미국 농공학회나 ICID 학술발표회와는 다소 다르게 운영되었다. 점심시간과 오전과 오후의 커피 브레이크 시간이 다소 길었다. 그리고 1,200여 편의 포스터 논문이 게시되었는데 이들 포스터는 개회식부터 폐막식까지 연속적으로 게시되었다. 나도 월요일 오전에 "Sediment control practices in sloping highland fields in Korea"라는 제목의 포스터 논문을 게시하였다. 나는 커피 브레이크와 점심시간, 그리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 1,000여 편 이상의 포스터를 보며 토양과학 분야의 연구동향과 경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연구자료 및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해 자료를 수집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다. 한 장소에서 1,000편 이상의 연구주제를 며칠 사이에 볼 수 있는 곳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나에게 정말로 감동이 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보통의 학술발표회에서는 포스터 발표시간에만 포스터를 게시하는데 이를 연장하여 게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구두발표세션에도 많이 참석하였지만 토양과학자의 발표는 수문분야 전문가인 나에게 그리 큰 감명을 주질 못했다. 내가 참석한 세션의 발표자들은 토양이 너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서운해 하는 발표를 많이 하였다. 시대가 변하면서 연구의 방향이 변하는데 원론적인 면에서 토양 중시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에 다소 씩씩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의 연구와 연관이 있는 세션의 발표는 나에게 새로운 느낌을 많이 주었다. 이는 비점오염원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관점보다는 토양 과학자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또한 개선점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내게는 많이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들 세션은 8월 2일 오후의 Improved water and soil management using lysimeters 세션, 8월 4일 오전의 Rice paddy soil workshop 등이 있었다. 필자도 라이시미터(혹은 runoff plot)를 이용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발표는 상당히 흥미있고 또한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8월 4일의 워크숍은 내가 현재 농어촌연구원의 지원으로 연구하고 있는 SRI (system of rice intensification 혹은 AWD-alternate wet and dry 관개법), 즉 비답수 벼 재배에 관한 자료가 많아 특히 유익하였다. 쌀 연구의 메카인 필리핀의 국제미작연구소(IRRI), 인도, 호주, 그리고 중국 등의 전문가들이 토양과 물관리에 관한 다양한 발표를 하여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한 연구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당초에 WCSS에 참석할 때는 이와 같이 귀중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막상 발표 자료와 논문을 구하고 보니 정말로 WCSS에 참석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희열과 기쁨이 비싼 경비를 지불하고서라도 국제학회에 참석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국제학술발표회의의 참가는 학술발표지역의 수자원과 환경, 하천관리, 자연자원의 관리와 보전 등 전문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도시계획, 농업, 상업, 풍습 등을 둘러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이번 학술발표회 참가를 통해 호주의 브리즈번이라는 도시와 주변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호주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물가가 매우 비싸다는 것이었다. 호텔, 식당, 교통비, 유원지 입장료 등 모두가 정말로 비쌌다. 호텔비는 보통 15~30만원이었으며 식사비용도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높았다. 식당에 가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에 비하여 식사비용이

높다. 남들이 쉬는 공휴일에 일을 하니 식당주인은 물론 종업원도 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말의 식사요금이 비싸진다고 한다. 호주인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주말에 음식값까지 높일 정도라는 생각은 할 수 없었다. 버스를 타도 현금을 내면 가까운 거리인 경우 1회 승차에 4천원 정도하는데 교통카드를 사서 사용하면 1천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였다. 반면에 식품점의 가격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크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호주의 자연환경을 매우 잘 보전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브리즈번 교외의 작은 산과 숲이라도 상당히 많이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반면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탐방로와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다. 브리즈번에서 멀지않은 Gold Coast는 국제적인 휴양도시답게 정말로 아름다웠으며 겨울철 비수기인데도 관광객이 많았다. 해변의 모래언덕에는 수십 층의 고층빌딩이 즐비하였으며 내륙의 광활한 습지는 택지와 공원지역으로 잘 개발되고 정비되어 스카이라운지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다른 나라 여행에서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느끼는 점 중의 하나는 중국인이 많다는 것이다. 중국인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자리 잡고 있는 중국계 호주인과 유학생 등이 한국과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리고 그들의 힘은 매우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호주 대학의 연구 분야에서도 이제는 중국인 유학생 없이는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지난 8월 말 중국 사천성 성도시의 도심을 방문했을 때도 그 규모와 화려함이 서울 명동이나 강남지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로 놀라고 또 놀랐다. 여행은 정말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한다. 이번의 호주 WCSS 학술발표회 참석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